

ABS, 1150달러로 4년간 최고기록

4월 내수가격 10만원 인상 고시 ... 중국-한국 오퍼가격은 대치상태

SM(Styrene Monomer) 가격강세로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생산기업들이 4월 내수가격을 톤당 10만원 인상할 것이라고 고시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이 재고부족에 따른 수요증가와 원재료인 SM의 아시아 공급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강세로 돌아서 생산기업과 수요기업이 동시에 거래를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BS 생산기업 관계자는 “4월 ABS 내수가격을 3월 마감가격보다 10만원 정도 인상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SM 가격이 현재 강세로 전환되는 분위기여서 상황에 따라 중순경에 추가인상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시아는 미국으로부터 월평균 1만-1만5000톤의 SM을 공급받는데, 미국의 벤젠(Benzene) 가격폭등으로 SM 가격도 동반상승함에 따라 4월 계약된 SM 가격이 FOB Korea 톤당 940달러, 5월 거래물량은 945달러에 이르는 등 SM 가격이 초강세 경향을 띠고 있어 4월 내수가격의 추가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4년 초 ABS 생산기업들은 SM 가격이 FOB Korea 톤당 900달러가 넘고 부타디엔(Butadiene)도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강세가 유지됨에 따라 1-2월 총 25만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2월부터 SM 가격하락세가 이어지면서 3월 내수가격이 2월보다 톤당 5만원 하락했었다.

ABS 생산기업들이 모든 그레이드 가격을 톤당 10만원 인상함에 따라 4월 내수가격은 일반용(Virgin) 그레이드가 톤당 150만원, Color 175만원, 내열성 180만-190만원, 난연성 195만원에 거래될 것으로 전망이다.

ABS 국제가격은 그동안 수요가 부진했던 중국이 재고부족에 따른 구매가 시작돼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4월 초 ABS 수출가격은 CFR CMP(Chinese Main Port) 1150달러까지 폭등하며 4년만에 최고가격을 갱신해 중국의 구매가 Hold됐는데, 국내 ABS 생산기업들도 SM 가격폭등으로 판매를 Hold해 생산기업과 수요기업간의 ABS 가격에 대한 의견이 대치돼 있는 상태이다.

ABS 무역상은 중국 수요기업들의 ABS 최대 구매 한계선을 CFR CMP 1150달러로 평가하면서 국내 ABS 생산기업들도 원재료인 SM 가격폭등에 따른 판매Risk가 커져 상호간에 거래가 중지됐다”고 밝혔다.

ABS는 CFR CMP 1120-1130달러에 거래될 당시 중국의 구매가 상당했으나 SM 가격불안정에 따른 국내 생산기업들의 가격인상 후 거래가 없는 상태로 국내 생산기업들은 추가인상을 고심하는 반면 중국은 가격하락을 위해 구매를 중지했다.

그러나 국내 ABS 무역상은 “중국은 이미 재고가 바닥이 난 상태로 구매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4-5월 ABS 가격이 추가인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BS는 AN(Acrylonitrile), 부타디엔(Butadiene), SM(Styrene Monomer)의 공중합체로 한국BASF는 그레이드 단순화, LG화학과 제일모직은 다양한 그레이드를 통해 가공기업에 맞추는 맞춤형 서비스로 국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김동민 조사기자>

<화학저널 2004/04/16>